

과학기술관련법의 분석을 통해 본 R&D 분야의 예산정책적 특징

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R&D예산정책실 부연구위원 이현숙

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는 과학기술을 전담할 수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, 정보통신 분야와의 융합과 연구개발 분야 지원을 통해 국가 성장 견인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. 이러한 조직 개편 노력 이외에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정책 의지 구현을 위해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 등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다양한 법률과 시행령을 정비하고, 효과적이고 정책에 부합하는 R&D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며,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연구개발 투자 방향에 걸 맞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. 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의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 의지를 과학기술관련법과 세부 사업별 예산 규모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. 우선, 예산 요구서에 제시된 R&D분야의 세부사업별 추진근거를 조사하여,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의 정합성을 분석한다. 그리고 정부 R&D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필요한 재정 소요를 유형별 과학기술관련법 중심으로 분석한다. 이러한 분석 연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R&D분야 예산 편성에 있어, 과학기술 정책의 시행계획을 마련하고, 효과적인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서 그 의의가 있다. 또한, 지식 환류를 통한 연구개발 성과 확산과 경제적 파급효과의 제고를 위해, 제도 개선차원에서 정부의 역할 발굴에 기여할 것이다.

주제어 : 과학기술관련법, 미래창조과학부, R&D예산편성, 예산편성 효율화
